

대한광통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 ▶ 영업이익 69억 원, 당기순이익 66억 원으로 각각 전년比 108.9%, 115.2% ↑
- ▶ 1분기 가이던스 초과 달성... 2018년 매출액 1,681억 원, 영업이익 349억 원 목표

[본 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 확인 후 검토 부탁드립니다.]

<2018-04-11> 대한광통신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국내 유일 광섬유 모재 제조업체 대한광통신(주)(010170)은 1분기 잠정 실적 집계 결과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48억 원, 영업이익 69억 원, 당기순이익 66억 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7%, 영업이익은 108.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15.2% 늘어나 수익성 향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이번 1분기 실적은 연초 발표한 가이던스 대비 매출액은 8.4%, 영업이익은 53.3% 초과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한광통신은 지난 2월 연간 및 분기별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1분기 매출액 321억 원, 영업이익 45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는 공정 밸런스 효율화, 설비 성능 개선, 선속 증대 등 기업측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광섬유 생산량 증가와 글로벌 광섬유 수요 확대에 의한 판가 인상이 맞물린 결과"라고 강조했다. 기업 내부의 노력이 긍정적 시장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해 더욱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대한광통신 오치환 대표이사는 "핵심 제품인 광섬유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며 "향후 의료용 광섬유, 레이저 광섬유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해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광통신은 1분기 목표치 초과 달성에 따라 2018년 실적 전망을 정정 공시했다. 새롭게 제시한 목표는 매출액 1,681억 원, 영업이익 349억 원, 당기순이익 329억 원이다. 1분기에 목표치 대비 매출액 27억 원, 영업이익은 24억 원 초과 달성한 점이 반영된 수치다.

☎ 자료문의: 대한광통신(주) 윤권중 팀장 (031-489-5110), 김동훈 과장 (031-489-5113)
(주)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010-8909-4042), 김물결 선임 (010-5104-3756)